

농가 발각 뒤집은 '붉은 물' 소동

화순서 토마토하우스정화 안된 폐액 하천 무단 방류 '논란'

"현행법상 영양물질은 제재할 수 없어...법 개정 논의 중"

최근 화순의 한 토마토하우스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액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붉은 물' 소동이 난 가운데 현행법에는 폐액 배출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붉은 물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에 결국 하우스 측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권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하우스 측이 다시 폐액을 내보내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환경부와 화순군청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영양물질인 폐액을 제재하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모두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과 방법만 명시돼 있을 뿐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은 영양물질에 대한 제재는 없다.

또 물환경보전법 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수질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

괄적인 조항도 있지만 이마저도 영양물질인 폐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화순 토마토하우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법을 찾는 중이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수경 재배 시설이 늘면서 새로운 배출 시설 관리가 필요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DI) 연구역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화순 청풍천 인근 대

규모 토마토하우스에서 정화 시설없이 폐액을 무단 배출해 하천이 붉게 물들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군청 담당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청풍천 인근 토마토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기 위해 물을 뿌린 뒤 발생한 붉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우스 측은 "유해물질이 아니고 다른 하우스도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붉은 물이 혐오감을 주고 부영양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군청이 조치에 나섰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농림부, 환경부 등이 공조해 새로운 배출 시설과 오염원에 대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제각각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속도제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라고 해서 속도제한이 다르지 않다. 다만 간선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고등학교, 치평초등학교, 전남중학교가 있는 상무공원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초·중·고학교 속도제한이 모두 같았다.

다만 편도 3차선인 상무공원로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일반도로라 속도제한이 30km/h였다.

하지만 한 블록을 지나 전남중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상무시민로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편도 3차로인 상무시민로는 광주 시청과 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간선도로로 인해 계수초등학교가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50km/h다.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광주청 교통계 관계자는 "간선도로 속도를 30km/h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시내 도심 주행도로를 60km에서 50km로, 학교 주변 등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개정법이 정착되면 50km/h와 30km/h로 제한되는 속도가 단순화돼 지금보다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NO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6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광주서 '日정권 규탄·지소미아 폐기 승리 시민대회' 열려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승리 광주시민대회'가 열렸다.

민중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대학생 등 300여명이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2일 전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은 자주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일본은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본

도발에 맞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재무장을 통한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과 군비증강을 요구하는 미국은 우리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를 시작으로 부당한 미국의 압력에도 자주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영상 상영, 공연, 대학생·고등학생 발언,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박범수군과 오미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이 결의문을 읽었다.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역대 정부는 외세와 맺은 불평등 협정에서 한 번도 파기나 종료를 한 적 없었다"며 "미국과 일본의 압박을 뚫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친일적폐 청산,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계기로 미국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한미일 삼각안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무안 유원지서 실탄 90여발 발견

24일 오후 1시56분쯤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한 유원지에서 실탄 등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 당국과 함께 5.56mm 실탄 20발과 민간수요 탄약 중 하나인 스포츠탄 74발 등을 발견했다. 총기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용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배 문 선장덜미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배를 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북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4분쯤 영광군 계마항 서쪽 3.7km 해상에서 9.77톤급 자방어선 K호(승선원 6명) 선장 A씨(43)가 해상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0% 만취상태였다.

음주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조업자 계마항에서 출항했다.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되고 피곤해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광철 북포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켜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차량 2대 치인 60대 숨져...운전자 뺑소니 입건

충북 청주삼당경찰서는 25일 도로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A씨(65)와 B씨(2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쓰러진 C씨(60·여)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2대에 치인 C씨는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C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신분증 요구에 창문 뛰어내린 여종업원

마사지 업소 불법영업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외국인 여성 종업원이 도주하려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쯤 불법 영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마사지업소에 출동했다.

경찰은 3층 업소 내부를 수색하다 태국인 종업원 A씨(41·여) 등 3명을 발견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가져라 가겠다고 방 안에 들어간 뒤 3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발목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종업원의 불법 체류가 가능성을 고려하고 도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세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팅앱서 만난 여성 감금 폭행 40대 男 검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폭행,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B씨(23·여)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분동안 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몰던 차 예상 도주로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9%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